

십 일 조	김동선(박민규) 김봉기(정미경) 김상호(이명욱) 김선규(김길중) 김수환(정선영) 김영길(김정숙) 김영호(마경희) 김용국(이희숙) 김원태(한현숙) 김재길(임혜숙) 김재신(김경화) 김종명(이혜자) 김종진(신근산) 김진한(김현순) 박기범(이경화) 박성원(김미현) 박종영(김은숙) 박희순(이미현) 반기섭(김완숙) 서창대(지명은) 소병일(안희정) 심종택(김영실) 양만기(김명숙) 연정웅(이복단) 오문식(조이라) 유병득(하명숙) 이기주(심미향) 이동기(김미화) 이병무(이육연) 이예자(김용태) 이희홍(성귀순) 이훈주(양미숙) 전필수(김재숙) 조도희(김은희) 조성준(최미경) 최영식(최진옥) 현강용(성태숙) 황갑연(조연숙) 권윤서 김계순 김나현 김선우 김소영 김순복 김예자 김예주 김정훈 김춘자 김태희 김해옥 김환희 박미자 박옥희 배순애 백영득 서경자 서정미 송원규 신계희 신민정 안능수 안비화 엄미리 오서을 오순전 윤민자 윤선호 이숙자 이순조 이연희 이예현 이윤규 이지우 이현숙2 장보균 전복자 전용부 정승호 정정자 지화진 최유정 최유정 최진호 하서희 하영래 한동규 홍숙애 무명2
-------	---

감 사	고관우(나여남) 고근호(이영진) 김병구(김신애) 김봉기(정미경) 김석중(박일규) 김석철(이경순) 김세권(박미경) 김수환(정선영) 김영길(김정숙) 김용국(이희숙) 김재영(이연주) 김종명(이혜자) 김진한(김현순) 김호섭(안정민) 박기봉(최명희) 박종영(김은숙) 박찬근(박정은) 박찬만(장 옥) 박희순(이미현) 백승일(홍성욱) 서창대(지명은) 심종택(김영실) 양만기(김명숙) 엄규환(김명원) 연정웅(이복단) 유병득(유홍근) 윤영준(김수미) 윤익중(이재순) 이영진(박용애) 이재영(이승현) 이희홍(성귀순) 이희홍(성귀순) 전필수(김재숙) 조성준(최미경) 채영복(김혜정) 최석현(김경순) 한동섭(곽경옥) 홍갑표(이양자) 황갑연(조연숙) 강영주 권민서 김경옥 김다혜 김사랑 김세영 김예자 김영숙3 김영희2 김미지 김정은 김주영5 김주원3 김창수 김태성2 김환희 남미숙 문형주 문혜민 박기은 박미자 박상익 박세영A 박옥희 박우림 박은혜 박지혜 반옥림 배순애 백승현 서경자 서정희 송원규 신계희 신민정 연성옥 오문식 오순전 오영환 이규호 이남례 이백호 이상화 이숙자 이시은 이재민 이창규 이희숙 임경덕 임경림 임영란 임재현 장보균 전순석 정승호 조한나 주연미 지연옥 지화진 최복근 최상심 하영래 한동규 한 진 흥두표 홍숙애 황영분 황순희2 무명30
-----	---

선 교	김봉기(정미경) 김수환(정선영) 김용국(이희숙) 김진한(김현순) 박희순(이미현) 서창대(지명은) 심종택(김영실) 양만기(김명숙) 연정웅(이복단) 오문식(조이라) 이희홍(성귀순) 전필수(김재숙) 조성준(최미경) 홍갑표(이양자) 황갑연(조연숙) 김순복 김정은 김환희 박보세 박미자 백영득 송원규 신계희 오순전 이순조 장보균 정승호 홍숙애 흥애란 무명1
-----	--

장 학	김수환(정선영) 심종택(김영실) 연정웅(이복단) 이희홍(성귀순) 조성준(최미경) 김정은 박미자 홍숙애
-----	--

구 제	김수환(정선영) 박희순(이미현) 방인대(이정희) 서상윤(이상화) 서창대(지명은) 심종택(김영실) 양만기(김명숙) 연정웅(이복단) 오문식(조이라) 이한규(박희숙) 이희홍(성귀순) 조성준(최미경) 홍갑표(이양자) 김정은 박옥희 신계희 신상권 오순전 정승호 4지역
-----	--

건 축	김수환(정선영) 양만기(김명숙) 연정웅(이복단) 이희홍(성귀순) 김정은 이선화 정승호
-----	---

신년감사	김재동(이외숙) 김충국(김희자) 문영근(정원영) 박경숙(이은정) 박기범(이경화) 박예철(신세이) 박재현(이미경) 박현수(류순현) 방인대(이정희) 서상윤(이상화) 서예정(김기수) 소병일(안희정) 연정웅(이복단) 이경화(김영호) 이대원(박은숙) 이영진(박용애) 이창규(이정희) 장득수(한영자) 전호열(서향산) 정길영(지영애) 주창성(신정미) 최영상(김희영) 최 용(김지현) 한병철(박희순) 홍상호(박상인) 강소연 강영자 강 호 금양순 김근보 김근순 김범숙 김민정 김상순 김용욱2 김정은 김하은 김현정1 김화인 나기남 박미자 박우림 박정숙 박해자 백영득 서경순 서병숙 송정수 안능수 안비화 양정자 오문식 오문자 우준기 이선화1 이연희 이현우 이해영 임영란 정세윤A 정여원 정연순 정영희 정진영 정혜룡 정해순 정화순 조복실 지화진 채은기 최유정 홍나현 홍숙애 황하람 무명5
------	--

구역에배현황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구역	인도자	인원
1	김현순1	17	신연자	33	서향순	49	이혜자1	65	김진경	81	정해순						
2	이만희	18	이임자	34	김혜정	50	이태숙	66	이은영1	82	마경희1						
3	박연숙	19	최외숙	35	이영순1	51	강경숙2	67	최유정	83	박미경2						
4	박원미	20	황미순	36	김승례	52	정미경	68	이점이	84	주정숙2						
5	이재순1	방	21	신현숙	방	37	김은경1	방	53	김금자	방	69	김옥진	방	85	김선화	방
6	정영희	22	이순례1	38	이복단	54	이영숙1	70	임혜숙	86	조향순						
7	계해정	23	서윤영	39	이선호	55	권혁화	71	최봉덕	87	이현자						
8	최미경	24	천명애	40	김은배	56	박동숙	72	양정자	88	김경애						
9	안비화	25	김명숙1	41	곽경옥	57	김병원	73	윤현구	89	백영득						
10	고종신	26	김정순1	42	강경숙1	58	김완숙	74	이영순2	90	조연숙						
11	이양자	27	조복실	43	박희순	59	김경복	75	이문순	91	김명준						
12	장보균	학	28	김옥아	학	44	유윤수	학	60	양희선	학	76	김명자2	학	92	윤명준	학
13	윤정희1	29	이남례	45	장정숙	61	이계옥	77	김영숙1	93	홍성우						
14	김용복	30	홍숙애	46	최명희	62	김명자1	78	윤영선	94	최정길						
15	백인주	31	채은기	47	박용애	63	이연주	79	홍현숙								
16	김희경	32	목영란	48	김동선	64	김미영	80	김연숙								

지난 주일 통계(현장 출석)

장 년 : 854명	청 년 : 79명	교회학교 : 241명	헌 금 : 58,656,000
------------	-----------	-------------	------------------

선 파 협력 교	송 • 박남호·최해정 (인도네시아 / 5남전도회, 다비다) • 이시몬 (튀르키예 / 3남전도회) • 박희원 (캄보디아 / 4남전도회) • 박선진 (태국 / 로이스) • 임찬호 (A국 / 리브가) • 강남휘 (인도 / 6남전도회) • 이윤준 (캐나다 / 마르다) • 정기화 (A국 / 7남전도회)
사 일 반	• 한승현·김유나 (말레이시아)
행 경 인	• 한빛 (용인 김병태 목사 / 리브가) • 새로남 (안양 박성우 목사 / 리브가) • 주안의 (광주 조용홍 목사 / 한나) • 청리예향 (인천 김상민 목사 / 사라)
회 제 교	• 새우리 (주문전 박영만 목사 / 청년교구) • 산계(강릉 나중수 목사 / 9남전도회) • 하나인(동성 국균호 목사 / 1남전도회)
강 원	• 동접 (괴산 권혁인 목사 / 2남전도회) • 원동 (속천 김사무엘 목사 / 다비다)
총 청	• 마지 (완주 이창수 목사 / 한나) • 생지 (순천 박광현 목사 / 6남전도회)
전 라	• 세간 (이령 김진홍 목사 / 4남전도회) • 비진도 (동영 이주태 목사 / 뤃) • 칠성 (청도 박상호 목사 / 마리아) • 당항포 (고성 진철화 목사 / 9남전도회) • 임봉 (구미 이계훈 목사 / 마르다) • 사승주목사의 (양산 서동혁 목사 / 마리아)
경 상	• 신재주김필리 (제주 김덕근 목사 / 뤃) • 오슬랜드 조은 (뉴질랜드 나영규 목사 / 권사회) • 몬트리올로망 (캐나다 강승희 목사 / 3남전도회)
제 주 해 외	• 서울 (고흥 진용섭 목사 / 7남전도회) • 동강중앙 (나주 유재경 목사 / 예스터) • 신기 (안도 정보영 목사 / 예스터) • 가조반석 (거창 허경주 전도사 / 로이스) • 영광스러운 (거제 이선주 목사 / 5남전도회) • 부천 (문경 강형권 목사 / 4남전도회) • 생들 (이성 박충녕 목사/ 다비다) • 구미 랫업 (구미 김재훈 목사 / 권사회)
군 선 (군 교 회 목)	• 새물대산 (영동포 감시한 목사 / 1남전도회) • 진리와자유 (서울 양현 김만성 목사 / 사라)
교	• 교남소망의집 (9남전도회) • 성남보육원 (8남전도회) • 국제기아대책기구 (7남전도회) • 밀알선교회 (6남전도회) • 결연경로당 • 한국기도연합회 • 더불어살기연합체센터 • 안기영교회(서원북사관교회) • 예쁜(이반석목사리브가)
신 학교	• 인도네시아 STTP 신학교
교 도 사	• 남부교도소(천양사역)

목 사	김수환 ukc97@hanmail.net 김봉기 kbu1826@gmail.com	김용국 kyk8214@naver.com 백요한 johnbaek28@gmail.com	오문식 oanstr@nate.com
전 도 사	서은희 ksjsys@naver.com	김혜숙 gongone21@daum.net	최선미 sunmi9013@hanmail.net
교 육 목 사	김정훈 sfc-ants@hanmail.net		
교 육 전 도 사	박정숙 yearam1216@hanmail.net 이희선 ced3575@naver.com 김주룡 jurongkim@naver.com	김찬양 kimchanyang94@gmail.com 박솔민 solveen@naver.com	김도현 ehgsaortm@naver.com 김지희 podonamu1981@naver.com
협 동 목 사	이향인		
장 로	[사무] 이규석 이화형 임경구 박희순 손중목 김세권 박기봉 허상환 김근석 김종명 김재동 김진배 김영희1 반기섭 [원로] 마의출 엄규환 전용부 서상윤 방인대 강 호 [은퇴] 김석중 문 흥 유인만 서창대 정희남 서문순 박제인 연정웅 조용욱 조성준 이기훈 박정수 김삼숙 박기범 이영진 이희홍 황상호 강 권 김봉기		
지 휘	박유찬 김종명 김영호 이예자 김선화 박영신 김종민		
반 주	김영길 이병서 이항구 정하경 김용정 김태희 김세미 황은정 허은민 문혜민 이은영 김주원 배예민 김사론 김소리 정현지 조은길 유진솔 선 휘		

장 년 모 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오전 5:30	주 일 2부예배: (주) 오전 09:30	주 일 3부예배: (주) 오전 11:30
주 일 1부 예 배: (주) 오전 07:30	주 일 저녁예배: (주) 저녁 07:00	
주 일 4부(청년)예배: (주) 오후 01:30	금 요 기 도 회: (금) 저녁 08:45	구 역 장 모 임: (금) 오전 09:40
수 요 저 녀 예 배: (수) 저녁 07:30	늘 푸 른 학 교: (화) 오전 10:30	L . T . C : (화) 오전 10:00
람 원 성 경 경 좌: (목) 오전 10:00		

교 회 학 교

영아부: (주) 오전 11:30 영아부실	유아부: (주) 오전 11:30 유아부실	유치부: (주) 오전 11:30 유치부실
유년부: (주) 오전 11:30 유년부실	초등부: (주) 오전 11:30 초등부실	소망부: (주) 오전 09:30 소망부실
중등부: (주) 오전 11:00 중등부실	고등부: (주) 오전 11:00 고등부실	

요엘의 꿈

교회사의 중대한 사건 중 하나는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1.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밝히주고 말씀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됨으로 서로 보완하며 교회의 참된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욱 풍요롭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2. 요엘의 예언

누가는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구약 시대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을2:28).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요체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3. 모든 육체에게

성령강림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만민과 육체에 차별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릴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상태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은 동일하게 영적 각성을 뜻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와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올 해 표어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바른 신앙과 교회 그리고 미래를 세워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